

약용약주 대중화를 위한 남·여 인식도 조사

이정구¹, 손은심², 이영복¹, 정철^{1*}
¹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²(주)비엔에프솔루션

A survey on Male and Female Perceptions for Popularization of Medicinal Yakju

Jeong-Gu Lee¹, Eun-Shim Son², Young-Bog Lee¹, Chul Cheong^{1*}
¹Dept. of Convergence Industry, Seoul Venture University, ²BNF Solution Co., Ltd.

요약 본 연구는 약용약주의 대중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남·여의 인식도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기간은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2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항목은 총 57개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 남성 179명(40.1%) 여성 268(59.9%)으로, 50대 236명, 60대이상 151명으로 나타났다. 403명이 기혼이며, 고졸이하가 252명(56.2%)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비교시, 남성 68명, 여성 84명은 '좋다'라고 하였으며, 전체 408명(91.2%)이 비흡연자로 나타났다. 질병이 식습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체 354명이 답하였다. 약주 구매동기 조사 시 남성 여성 모두 건강을 걱정할 때, 맛이 좋을 때 구매한다고 하였으며,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남성과 여성 모두 맛/향(3.91)이라고 하였다. '약용약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인식한 정도가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주의 대중화를 위한 제안사항에서 남성, 여성 모두 경쟁적 차별성이 필요하다(4.22)를 가장 으뜸으로 뽑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약용약주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 광고/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men and women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opularization of medicinal Yakju.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two months, from May to July 2020. In total, 179 males (40.1%) and 268 females (59.9%) were selected. A total of 236 people were in their 50s, and 151 people were in their 60s. A total of 403 people were married, and 68 men and 84 women said they were in good health. A total of 354 people answered that the disease could be caused by eating habits. In the investigation of motives for purchasing medicinal Yakju, both men and women said that they purchased it because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ir health or it tasted good.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when purchasing was taste/scent for both men and women. In the proposal for the popularization of medicinal Yakju, both men and women had the highest item of necessity for competitive differentiation (4.22). Our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popularize medicinal Yakju,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products that meet the consumers' tastes, improve quality and advertise.

Keywords : Medicinal Yakju, Perception, Motives for Purchasing, Considerations, Popularization

*Corresponding Author : Chul Cheong(Seoul Venture Univ.)

email: chulcheong@hotmail.com

Received September 24, 2021

Revised October 13,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Published January 31, 2022

1. 서론

약용약주(藥用藥酒)는 약재(藥材)를 먹기 위하여 술을 빚을 때 한약재를 넣거나, 발효가 끝난 술에 한약재를 넣어 약 성분이 우려나오게 한 것을 말한다. 약용약주에는 청주에 후춧가루·황밀을 넣은 자주(煮酒), 술을 빚을 때 구기자(枸杞子)를 넣은 구기주(枸杞酒), 오가피·당귀·우슬 등을 넣은 오가피주(五加皮酒), 청주에 백출·대황·천초·도라지·오두·호장근을 넣은 도소주(屠蘇酒), 송절의 삶은 즙을 넣은 송절주(松節酒), 청주에 참깨·울무·생지황을 넣어서 만든 거승주(巨勝酒), 청주에 새빨강게 달근 철기(鐵器)를 넣은 벽력주(霹靂酒), 구운 호랑이 정강이뼈를 넣어 만든 호골주(虎骨酒), 황구육즙을 넣어 만든 무술주(戊戌酒), 산마·산수유·오미자·인삼 등을 넣어 만든 서여주(蓍蕒酒), 청주에 석창포 달인 즙을 넣은 창포주(菖蒲酒) 등이 있다[1,2]. 이렇듯 약용약주는 술에 약재와 기타부재료를 함께 넣어 빚고, 일정 기간 익힌 술을 뜻한다.

우리나라 약용약재를 이용한 술빚기가 시작된 시기는 고려시대부터이며, 동의보감 잡병편에는 약초에 대한 조제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28가지 약재를 혼용한 약주제조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구기자, 모과 등 70여 가지의 약재들이 사용되었다[3]. 이러한 약용약주의 특징은 건강증진의 목적과 함께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성인병으로 상정되는 혈관계 질환과 신경관계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강장 강정효과, 머리와 피부를 늙지 않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약재들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약용약주류로는 한산 소곡주를 비롯하여 계룡 백일주, 기양곡 왕주, 달성 하향주, 안동 송화주, 청양 구기주, 남해 유자주, 낙안 사삼주, 함양 국화주, 완주 송죽오곡주, 청원 신선주, 서울 송절주 등이 있다[4].

최근 물질적 가치보다 건강한 삶을 중요시하는 추세에 따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능성이 부각된 건강식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전통주도 이에 맞는 새로운 접근과 더불어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전통주가 판매되고 있다[5]. 또한 이러한 기능성을 이용하여 제품의 균일화 및 객관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까지 갖춘 약용약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기능성이 보고된 식용 한약재 및 약용 식물을 첨가한 약주 개발의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약주에 대한 연구로는 더덕, 대추, 오가피, 갈대, 자몽 등을 첨가한 약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6-8], 손바닥산인장, 효모, 올방개, 누룩, 자두, 연잎, 갈대, 호박, 쌀, 머

루, 울금, 오미자, 인삼, 대추 등에 대한 약주의 품질특성[9-11] 및 첨가비율에 따른 약주의 특성까지[12,13]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나무알코올추출액을 첨가한 약주의 품질특성[14]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 외에 소비자 조사 연구는 시판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호 특성을 분석한 연구[15]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전통주를 동반한 한식[16] 및 전통주의 개선 방안[17]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기능성 약주 브랜드의 인지도 개선 필요성과 전통주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한식과 전통주의 조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17,18].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에 기능성 약주인 약용약주의 소비실태와 니즈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는데 이는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파악 없는 기능성 위주의 제품 개발은 그 성공률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17,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용약주의 대중화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남·여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약용약주에 대한 남·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인식조사 결과를 제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대중화를 위한 방향제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약재가 첨가된 약용약주의 대중화를 위해 남·여 인식도를 조사한 것이다. 예비조사는 2020년 5월 1일~2일 사이에 송호대학교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 재구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약용약주 소비 경험이 있는 송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호대학교 자연건강융합학과, 의정부 농업기술센터, 서울벤처대 대학원, 약용식물자원관리사, 성덕농원약초원과 경기도 인천 지역내에 있는 공공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2020년 5월 8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설문에 관한 응답 요령을 설명하였으며, 설문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법을 이용하였다. 총 500부를 배포하여 478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31부(6%)를 제외한 총 447부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약용약주에 대한 정의를 Park[2]과 Jeon et al.[20]의 연구를 토대로 사전적 의미의 약주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기능성 약재를 첨가한 약주로 정의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6,21]. 본 설문지는 사용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한 뒤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문항은 보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주류와 관련된 소비자 조사 선행연구 및 기존 설문지[17,22,23]를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령, 결혼, 교육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8문항,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운동, 흡연과 같은 건강관련 정보 5문항, 약용약주 구매동기 9문항, 약용약주 구매시 고려사항 9문항, 약용약주 인식도 조사 10문항, 약용약주가 서양주류에 비해서 인식이 저조한 이유 7문항, 대중화를 위한 제안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약용약주 구매동기, 약용약주 인식도 조사, 인식 저조 이유, 대중화를 위한 제안 조사는 Likert 5점 척도를 측정하여 5점(매우 좋아한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표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질문에 대해 높은 경향을 띠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한 문항의 총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807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2.3 통계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SPSS Inc. ver.21.0)을 이용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정보는 빈도와 백분율로 하였고, 독립된 두 집단 비교를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약용약주 구매동기, 약용약주 인식도 조사, 인식 저조 이유, 대중화를 위한 제안 조사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두 집단 비교를 위해 t-test 분석을 하였다. 통계적인 유의도는 $p < .05$, $p < .01$, $p < .001$ 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대, 결혼 여부, 학력, 종교, 직업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분석 자료에 이용된 총 447부에 대한 결과이다. 성별로는 남성 179명(40.1%) 여성 268(59.9%)으로 여

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 16명(3.5%), 40대 44명(9.8%), 50대 236명(52.7%), 60대이상 151명(34.0%)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403명(90.1%)이 결혼했다고 하였으며 44명(8.9%)만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라고 답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가 전체 252명(56.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의 경우 147명(32.7%)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간에는 남성, 여성 모두 고졸이하가 84명(46.9%), 168명(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간의 학력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종교의 경우 무교가 전체의 164명(36.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132명(29.5%)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시 남성 여성 모두 무교가 각각 72명(40.2%), 92명(34.3%)로 종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은 서울, 경기도 지역이 148명(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의 경우 여성의 경우 주부인 경우가 여성 전체의 68명(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전문직(60명, 22.3%), 회사원(56명, 20.8%)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남성 전체 중에서 자영업이 68명(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순으로 기타(52명, 29.0%), 전문직(24명, 13.4%), 회사원(24명, 13.4%) 순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이 직업적인 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p < .001$). 소득의 경우 조사대상자 전체 100~200만원이 152명(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는 400만원 이상이 52명(14.5%)로, 여성의 경우 100~200만원 112명(20.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3.2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정보 비교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에 대해 나타난 결과이다(Table 2). 건강상태를 비교해보면 전체 152명(34%)이 좋은 편이라고 답하였다. 성별 비교시 남성의 경우 보통(95명 53.1%)이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좋은 편 이상의 경우가 68명(39%)로 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84명(31.4%)로 여성이 건강상태에 대해서 좋다고 답하였다. 흡연의 경우 전체 339명(75.8%)이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현재 시점에서 피우지 않는 대상자 수가 전체 408명(91.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운동 빈도의 경우 거의 안한다고 답한 경우가 115명(25.7%)로 나타났으며 남성 여성 모두 1주일에 1~2회 운동한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습관에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Male	Female	Total	χ ²	p
N		179(40.1)	268(59.9)	447(100)		
Age	30's	¹⁾ 12(6.7)	4(1.4)	16(3.5)	39.107	0.000***
	40's	20(11.1)	24(8.9)	44(9.8)		
	50's	64(35.7)	172(64.1)	236(52.7)		
	Over 60's	83(46.5)	64(25.6)	151(34.0)		
Marital Status	Married	147(82.1)	256(95.5)	403(90.1)	31.406	0.000***
	Single	32(17.8)	12(2.9)	44(8.9)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84(46.9)	168(62.5)	252(56.2)	38.704	0.000***
	College graduate	12(6.7)	36(13.4)	48(10.7)		
	University graduate	40(22.3)	48(17.9)	88(19.6)		
	Graduate school or higher	43(24)	16(5.9)	59(13.1)		
Religion	Christian	48(26.8)	84(31.3)	132(29.5)	4.586	0.205
	Catholic	23(12.8)	24(8.9)	47(10.5)		
	Buddhism	36(20.1)	68(25.3)	104(23.2)		
	Atheism	72(40.2)	92(34.3)	164(36.6)		
Hometown	Seoul Or Gyeonggi-do	68(37.9)	80(29.8)	148(33.1)	6.106	0.296
	Chungcheong-do	16(8.9)	24(8.9)	40(8.9)		
	Gyeongsang-do	20(11.1)	40(14.9)	60(13.4)		
	Jeolla-do	24(13.4)	28(10.4)	52(11.6)		
Job	Other areas	51(28.4)	96(35.7)	147(32.8)	100.188	0.000***
	Housewife	0(0)	68(25.3)	68(15.2)		
	Office worker	24(13.4)	56(20.8)	80(17.8)		
	Civil servant/Teacher	11(6.1)	0(0)	11(2.4)		
	Profession	24(13.4)	60(22.3)	84(18.7)		
	Self-employment	68(37.9)	44(16.4)	112(25)		
Income (million won)	Etc	52(29)	40(14.9)	92(20.5)	53.344	0.000***
	100 or less	4(1.1)	24(4.4)	28(3.1)		
	100-200	40(11.1)	112(20.8)	152(17)		
	200-300	48(13.4)	76(14.1)	124(13.8)		
	300-400	35(9.7)	36(6.7)	71(7.9)		
Over 400	52(14.5)	20(3.7)	72(8)			

***p<.001, ¹⁾ N(%)

Table 2. Health-related information of the survey subject

Division		Male	Female	Total	χ ²	p
N		179	268	447		
Health status	Bad	¹⁾ 16(8.9)	40(14.9)	56(12.5)	9.740	0.021*
	Average	95(53.1)	144(53.7)	239(53.5)		
	Good	44(24.6)	68(25.4)	112(25.1)		
	Wery good	24(13.4)	16(6.0)	40(8.9)		
Smoking	Smoking (1 pack/day)	18(10)	20(7.4)	38(8.5)	1.684	0.64
	Smoking (13 cigarettes/day)	0(0)	1(0.3)	1(0.2)		
	Stopped	26(14.5)	43(16)	69(15.4)		
	No Smoking	135(75.4)	204(76.1)	339(75.8)		
Exercise frequency	More than 5 times/week	18(10)	35(13)	53(11.8)	2.447	0.294
	3-4 times/week	39(21.7)	51(19)	90(20.1)		
	1-2 times/week	50(27.9)	81(30.2)	131(29.3)		
	1-3 times a month	22(12.2)	36(13.4)	58(12.9)		
The link between diet and disease	Hardly ever	50(27.9)	65(24.2)	115(25.7)	6.041	0.037
	Have	133(74.4)	221(82.3)	354(78.9)		
	None	17(9.6)	22(8.3)	39(8.8)		
Daily activity intensity	Not sure	29(16.1)	25(9.5)	54(12.3)	4.271	0.234
	Light activity	54(30.1)	84(31.3)	138(30.8)		
	Normal activity	49(27.3)	54(20.1)	103(23)		
	Heavy activity	67(37.4)	108(40.2)	175(39.1)		
Strenuous activity	9(5)	22(8.2)	31(6.9)			

*p<.05, ¹⁾ N(%)

의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의 질문에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수가 전체 354명(78.9%)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활동 강도의 경우 전체 175명(39.1%)가 심한 활동을 한다고 답하였으며 남성 여성 모두 심한 활동, 가벼운 활동 순으로 답하였다.

3.3 약용약주 구매동기 비교

Table 3은 약용약주 구매동기 조사 결과로 전체 질문에 남성의 경우 건강을 걱정해서(3.64), 맛이 좋아서(3.60) 일때 구매동기가 3.60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판매자의 권유(2.58), 광고를 보고(2.84), 즉흥적(2.85)으로 약용약주를 구매하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건강을 걱정해서(3.63), 맛이 좋아서(3.54), 기호에 맞을 경우(3.45) 구매동기가 3.40 이상으로 약용약주의 구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자

의 권유(2.53)나 즉흥적(2.44)으로 약용약주를 구매하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호감의 경우 남성은 3.40으로 여성의 경우 2.94로 약용약주 구매시 구매동기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p < .001$). Jeong와 Ko[24]의 연구에서도 유기농 와인의 구매동기가 맛, 가격,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과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건강속성이 구매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약용약주 구매시 고려사항 비교

성별에 따른 약주 구매시 고려사항에 대한 중요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이다(Table 4). 남성과 여성에게 제품의 가격, 기능 및 효능, 모양이나 색상, 포장상태, 유통기한, 브랜드, 편리성, 맛/향, 건강상태개선과 같은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성별에 따른 약용약주 구매 고

Table 3. Motives to purchase Medicinal Yakju according to gender

Motivation for purchasing	Male	Female	t	p
N	197	268		
Taste	¹⁾ 3.60±0.95	3.54±1.09	0.599	0.549
Convenient	2.88±0.99	3.06±1.06	-1.766	0.078
Preference	3.55±1.02	3.45±0.99	1.079	0.281
Health	3.64±0.97	3.63±1.15	0.148	0.882
Recommendations	2.87±0.96	2.79±1.04	0.784	0.434
Seller's recommendation	2.58±0.88	2.53±1.03	0.594	0.553
Advertisement	2.84±0.91	2.60±1.04	2.470	0.014*
Impulse	2.85±1.09	2.44±1.03	4.103	0.000***
Brand favoritism	3.40±0.88	2.94±1.05	4.743	0.000***

* $p < .05$, *** $p < .001$, ¹⁾Mean±SD 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Table 4. Considerations when purchasing Medicinal Yakju according to gender

Considerations when purchasing	Male	Female	t	p
N	197	268		
Price	¹⁾ 3.44±0.68	3.48±0.92	-0.449	0.653
Function and efficacy	3.60±0.95	3.93±1.01	-3.423	0.001**
Shape or color	3.06±1.04	3.37±0.99	-3.186	0.002**
Packaging condition	3.17±0.99	3.48±1.05	-3.048	0.002**
Shelf life	3.54±1.07	3.82±1.13	-2.657	0.008**
Brand	3.32±0.81	3.43±0.95	-1.255	0.210
Convenience	3.08±0.91	3.42±1.01	-3.550	0.000***
Taste/smell	3.91±1.03	4.03±1.03	-1.191	0.234
Health condition improvement	3.70±0.95	4.00±1.05	-3.019	0.003**

** $p < .01$ *** $p < .001$, ¹⁾Mean±SD 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려사항에서 남성의 경우 맛/향(3.91)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다음 순으로 건강상태개선(3.70)을 포함했는지, 기능 및 효능(3.60), 유통기한(3.5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맛/향(4.03)이었으며, 건강상태개선(4.00)도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편리성($p<.001$), 기능 및 효능($p<.001$), 포장상태($p<.01$), 유통기한($p<.01$), 건강상태개선($p<.01$)을 남성보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겼다. Lee 등[19]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주류 구매시 여러 가지 고려 항목에 대해서 맛이 구매 시 유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격, 구매용이, 외관 순으로 나타났다. Park[25]의 연구에서도 전통주를 고를 때 풍미, 다양성, 가격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소비자가 전통주 및 약용약주를 구매할 때 맛과 향 즉 관능적 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주 및 약용약주를 만들 때 기능성도 중요하고 소비자의 오감을 즐길 수 있는 제품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5 약용약주에 대한 인식도 비교

성별에 따른 약용약주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이다(Table 5). 남성의 경우 '약용약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인식한 정도가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3.46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남성의 경우 그 다음 순으로 '약용약주가 다른 술에 비해 인체효능이 좋다', '약용약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 약용약주에 대해 친근감이 있는 편이다'라고 3.26이상으로 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약용약주가 다른 술에 비해 인체효능이 좋다'가 3.31로 높은 인식의 수준을 나타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시 '약용약주에 대해 잘 알고 있다'($p<.001$), '전통주 발효제인 누룩, 입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p<.01$), '약용약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p<.05$), '약용약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p<.05$)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인식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전통주의 쌀, 누룩, 물을 이용한 덧담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있다', '식사 혹은 술자리에서 약용약주를 선호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적 약용약주를 권한다'와 같은 항목에서는 3.0이하의 인식수준을 나타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약용약주에 대한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Park[25]의 전통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통주를 한국의 술, 건강에 좋은 술, 어른들이 마시는 술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에 좋은 술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3.0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주 및 약용약주를 담글 때 사용되는 원료 및 부원료가 몸에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건강에 좋은 술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Table 5.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Medicinal Yakju according to gender

Comparison of perceptions	Male	Female	t	p
N	197	268		
I am familiar with medicinal drugs.	¹⁾ 3.03±1.02	2.46±1.07	5.606	0.000***
I look at the ingredients and ingredients on the back label before purchasing.	3.17±1.16	3.01±1.19	1.337	0.182
I am familiar with Nuruk and Koji well.	3.15±1.21	2.76±1.15	3.379	0.001**
I have some knowledge about rice, koji, and water simmering.	2.92±1.33	2.31±1.27	4.859	0.000***
I am familiar with medicinal drugs.	3.26±1.18	3.00±1.26	2.209	0.028*
If medicinal liquor is sold at a drinking party, I must buy it.	2.50±1.02	2.09±1.14	3.846	0.000***
I think medicinal drugs are more effective for the human body than other alcohols.	3.46±0.93	3.31±1.12	1.477	0.140
Recommend medicinal drugs to those around you.	2.66±1.03	2.36±1.15	2.810	0.005**
I want to publicize the excellence of medicinal drugs.	3.28±1.00	3.01±1.12	2.539	0.011*
I believe that medicinal drugs will continue to evolve in the future.	3.73±1.10	3.46±1.04	2.555	0.011*

* $p<.05$, ** $p<.01$ *** $p<.001$ ¹⁾Mean±SD 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3.6 약용약주 이용이 서양주류보다 저조한 이유

남성의 경우 '인식이 부족하다'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쉽게 접할 수 없다'(3.47), '종류의 다양성이 부족하다'(3.27), '비싸다'(3.08), '맛이 덜하다'(3.01)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여성의 경우 '인식이 부족하다'(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종류의 다양성이 부족하다'(3.66), '쉽게 접할 수 없다'(3.57), '비싸다'(3.39)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시 '비싸다'(p<.001), '종류의 다양성이 부족하다'(p<.001), '너무 싸다'(p<.01)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Kim과 Han[15]의 연구에서 약용약주와 같은 전통주가 발전하지 못한 문제점에서 '홍보부족', '국가적 지원 미흡' 등을 들었으며 전통주 이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인식부족', '종류의 다양성 부족과 가격의 문제', '향이 나쁘다', '맛이 덜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용약주를 포함한 전통

주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전통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Lee 등 [19]의 연구에서는 약주를 자주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조사대상자들은 '가격이 비싸서', '술 마신 후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가격에 대한 재고를 통해 시장 확대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3.7 약용약주 대중화를 위한 제안 비교

Table 7은 성별에 따른 약주의 대중화를 위한 제안 조사결과이다. 약주의 대중화를 위한 제안사항에서 남성의 경우 경쟁적 차별성이 필요하다(4.22)를 가장 제안사항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 고급화(4.04), 다양한 상품개발(3.91), 패키지 고급 디자인(3.8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제안사항에서 경쟁적 차별성 필요(4.0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홍보강화

Table 6. Reasons for low awareness compared to Western mainstream according to gender

Reasons for low awareness	Male	Female	t	p
N	197	268		
Taste less	3.01±0.94	2.96±0.87	0.578	0.563
Not easily accessible	3.47±0.90	3.57±0.83	-1.106	0.269
Expensive	3.08±0.99	3.39±0.75	-3.747	0.000***
Lack of awareness	3.81±0.90	3.76±0.91	0.555	0.579
Lack of variety	3.27±0.99	3.66±0.70	-4.753	0.000***
Smell bad	2.73±1.06	2.88±0.87	-1.674	0.095
Too cheap	2.37±0.82	2.58±0.81	-2.626	0.009**

p<.01 *p<.001 ¹⁾Mean±SD 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Table 7. Comparison of proposals for popularization in Medicinal Yakju according to gender

Proposals for popularization	Male	Female	t	p
N	197	268		
Various product development	¹⁾ 3.91±0.69	3.79±0.78	1.650	0.100
Affordable price	3.35±0.97	3.49±0.83	-1.629	0.104
Proper education on yakju	3.64±0.92	3.78±0.84	-1.576	0.116
Promotion/Marketing Reinforcement	3.80±1.05	3.96±0.78	-1.800	0.073
Distribution network expansion	3.88±0.95	3.93±0.76	-0.526	0.599
Reduced Liquor Tax	3.42±1.04	3.73±0.82	-3.596	0.000***
Advanced package design	3.89±0.92	3.73±0.87	1.811	0.071
Quality enhancement	4.04±0.84	3.91±0.84	1.580	0.115
Competitive Differentiation Needed	4.22±0.79	4.04±0.82	2.291	0.022*

*p<.05, ***p<.001, ¹⁾Mean±SD 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3.96), 유통망확대(3.93), 품질고급화(3.91)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화를 위한 제안 사항을 남성 여성 모두 보통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주세인하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제안사항($p < .001$)으로 꼽는 걸 알 수 있었고 경쟁적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사항에서는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음($p < .05$)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비자가 요구하는 약용약주 대중화를 위해서는 맛/향 개선뿐만 아니라 브랜드 개발,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의 품질관리, 다양한 제품개발, 유통채널확대[16], 동반 음식개발[26]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먼저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가격, 맛, 다양성 및 홍보부족,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을 낮추고 접근성이 쉬운 제품의 개발과 안전한 국산원료를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약용약주의 대중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남·여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성 179명(40.1%) 여성 268(59.9%)으로, 연령대는 50·60대가 387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7%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403명(90.1%)이 기혼이며 고향은 서울, 경기도 지역이 148명(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주부인 여성이 전체의 68명(25.3%), 자영업자인 남성이 68명(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 조사에 남성 여성 모두 보통이상(87.5%)으로 좋은편에 속한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91.2%가 비흡연자로, 식습관에 의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78.9%)라는 인지와 연결된다고 본다. 약용약주 구매동기 조사 시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을 걱정해서, 맛이 좋아서 일때 구매의 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외로 판매자의 권유, 광고를 보고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용약주 구매시 고려사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맛/향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편리성, 기능 및 효능, 포장상태, 유통기한, 건강상태개선을 남성보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겼다.

약용약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약용

약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인식한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약용약주가 다른 술에 비해 인체효능이 좋다', '약용약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 약용약주에 대해 친근감이 있는 편이다'로 나타났다. 약용약주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남성 여성 모두 경쟁적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 고급화, 홍보강화, 다양한 상품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약용약주에 대한 남녀소비자들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품질(맛/향),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상표, 디자인, 가격, 광고 등은 별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약용약주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품질 향상, 광고/홍보를 이용한 대중의 친밀도와 인지도 증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용약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하고 약용약주에 대한 선행연구도 거의 없는 현 시점에 본 연구는 향후 약용약주를 연구 판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초자료가 되어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에는 약용약주 소비자들의 구매동기 및 고려사항 등에 관한 실질적 연구사례가 부족해 이번 연구에 사용된 검증 및 분석방법 등은 향후 연구주제를 확장해 감에 있어 이론적 검증의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이론적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약용약주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더불어 약용약주의 인지도 상승, 시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약용약주의 소비시장 확대와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Wikisillox Dictionary
- [2] S.J.Lee, E.M.Kim, S.Y.Choi, B.H.An, S.A.Kim, M.A.Le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liquor with health-benefit through consumer and functional studies"., Ministry of Agriculture report. Agricultural Research & Development Promotion Center, Korea, 2006.
- [3] Y.S. Kim, Y.Y, Kwon, S.J. Jeon, C. H. Kim, "A Study about Characteristic of the Medicinal Herbs Added in the Traditional Korean Liquor".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ol. 18, No.1,

- pp.93-101, 2014.
- [4] R.D.Park, p.359, Korean traditional sake I, Korea Showcase Publishers, 2005, pp.15-100.
- [5] S.K..Yum, "History and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s",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Vol.53, No.1, pp.84-91, 2020.
- [6] I.H.Kim, S.H.Kim, J.H.Kwon,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of Yakju Added with Acanthopanax cortex Extra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Vol. 37, No.4, pp.521-527, 2008.
DOI: <https://doi.org/10.3746/jkfn.2008.37.4.521>
- [7] S.T.Kim, S.M.Kim, J.H.Jeong, Y.D.Kim, "Quality characteristics of Yakju at addition sprout and root of reed", *Korean Journal of Food Preservation*, Vol. 22, No.4, pp.490-497, 2013.
DOI: <https://doi.org/10.11002/kjfp.2015.22.4.490>
- [8] J.O.Lee, C.J.Kim, "The Influence of Adding Buckwheat Sprouts on the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of Yakj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Vol. 26, No.1, pp.72-79, 2011.
DOI: <https://doi.org/10.7318/KJFC.2011.26.1.072>
- [9] J.S.Choi, S.H.Yeo, H.S.Choi, S.T.Jeong, "Quality characteristics of Yakju containing pretreated lotus leaves", *Korean Journal of Food Preservation*, Vol. 23, No.2, pp.204-210, 2016.
DOI: <https://doi.org/10.11002/kjfp.2016.23.2.204>
- [10] J.E.Kang, J.W.Kim, H.S.Choi, c.g.kIM, S.H.Yeo, S.T.Jeong, "Quality characteristics of rice and rice starch-based Yakju", *Korean Journal of Food Preservation*, Vol. 22, No.3, pp.353-360, 2015.
DOI: <https://doi.org/10.11002/kjfp.2015.22.3.353>
- [11] C.K.Huh, S.M.Kim, Y.D.Kim, "Comparison for enzymic activity of Nuruk and quality properties of Yakju by different fungi", *Korean Journal of Food Preservation*, Vol. 21, No.4, pp.573-580, 2014.
- [12] J.B.Lee, J.S.Lee, M.H.Kim,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Yakju Fermented with Different Ratios of Dandelion (*Taraxacum platycarpum*) Root Powd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Vol. 41, No.6, pp.834-839, 2012.
DOI: <https://doi.org/10.3746/jkfn.2012.41.6.834>
- [13] J.S.Choi, S.H.Yeo, J.H.Choi, H.S.Choi, S.T.Jeong, "Quality Properties of Jujube Yakju Based on the Adding Rate of Dried Jujube and Storage Periods", *Korean Journal of Food Preservation*, Vol. 20, No.1, pp.52-61, 2013.
DOI: <http://doi.org/10.11002/kjfp.2013.20.1.52>
- [14] G.T.Jung, J. Ryu, I.O.Ju, J.J.Noh, J.M.Kim, "Quality Characteristics of Yakju (Korean Traditional Rice Wine)Added with Bamboo Ethanol Extra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Vol.43, No.2, pp. 281-286, 2014.
DOI: <https://doi.org/10.3746/jkfn.2014.43.2.281>
- [15] S.J.Lee, "Effect of Brand Recognition and Familiarity on Consumer Preferences for Commercial Rice Wines (yakju)",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Vol. 43, No.1, pp.23-29, 2011.
DOI: <http://doi.org/10.9721/KJFST.2011.43.1.023>
- [16] K.M.Han, "A Study on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Korean Liquor into Overseas Market Using Korean Wave",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Vol. 85, No.1, pp.261-278, 2020.
DOI: <http://doi.org/10.35980/KRICAL.2020.02.85.261>
- [17] J.Y.Kim, K.S.Park, "Analysis of Consumers' Present Use and Future Demand of Traditional Korean Liquors", *Korean journal of food and cookery science*, Vol. 30, No.1, pp.41-50, 2014.
DOI: <https://doi.org/10.9724/kfcs.2014.30.1.041>
- [18] E.H.Kim, B.H.An, M.A.Lee, "Analysis of Consumer Consumption Status and Demand of Rice-w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Vol.42, No.3, pp. 478-486, 2013.
DOI: <http://doi.org/10.3746/jkfn.2013.42.3.478>
- [19] S.J.Lee,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and Perception about Korean Yakju in the Gyunggi Area of Korea",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Vol.20, No.1, pp. 11-19, 2010.
DOI: <https://doi.org/10.17495/easdl.2017.4.27.2.215>
- [20] H.I.Jeon, H.J.Lee, S.W.Lee, "Analytical Study o Compounded Alcoholics Presented in "Chu Chan",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Vol.2, No.1, pp. 1-16, 1992.
- [21] J.H.An, *An Analysis of the Drinking Pattern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buk and Effect of Drinking on their Health*, Master's thesis, KyungBook University, Korea, 2016.
- [22] H.E.Kim, J.E.Kang, H.S.Choi, S.T.Jeong, "Survey of Consumer Awareness and Consumption of Yakju by Age",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Vol. 28, No. 5, pp.356-363, 2018.
DOI: <https://doi.org/10.17495/easdl.2018.8.28.5.356>
- [23] K.R.Kim, E.Y.Chang, K.H.Lee, "Consumer segmentation based on wine selection attributes for the harmony with desserts", *The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24, No.1, pp.279-301, 2021.
DOI: <https://doi.org/10.47584/ifm.2021.24.1.279>
- [24] Y.K. Jeong, J.Y.Ko. "PThe Effects of Well-Being Lifestyle on Selection Motives and Purchase Intention of the Organic Wine: Focused on the Moderating Role of Wine Knowledge",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26, No.8, pp.200-214, 2020
DOI: <https://doi.org/10.20878/cshr.2020.26.8.018>
- [25] S.R.Park.. *Influence of use motive of traditional liquor on repurchase intention depending on liquor-consumption behavior*,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2018.
- [26] HH, Jin, SJ, Lee. "Perception of Korean Rice Wine and

Food Pairings among Foodservice Employe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Vol.24, No.3, pp.283-290. 2014.
DOI: <https://doi.org/10.17495/easdl.2014.06.24.3.283>

이 정 구(Jeong-Gu Lee)

[정회원]



- 2002년 8월 ~ 현재 : 창대경영대표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경영대학원 벤처경영 박사수료
- 2020년 9월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발효식품양조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전통주개발, 천연발효식초

손 은 심(Eun-Shim Son)

[정회원]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이학사)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 2011년 2월 :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 2006년 1월 ~ 2019년 12월 : 안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
- 2019년 8월 ~ 2020년 5월 : 네이처센스농업법인 연구소장
- 2020년 6월 ~ 현재 : (주)비엔에프솔루션 식품사업부 본부장

<관심분야>

식품개발, 발효식품학, 관능검사

이 영 복(Young-Bog Lee)

[정회원]



- 2012년 2월 : 국제중의사-위생부 졸업
- 2013년 1월 ~ 2021년 2월 : 한국 약용식물협회 이사장
- 2019년 2월 ~ 현재 : 송호대 복지 건강융합과 겸임교수
- 2020년 4월 ~ 현재 : 약초학당 이사장
- 2021년 2월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발효식품양조학 박사학위취득

<관심분야>

전통주개발, 건강과 약초

정 철(Chul Cheong)

[정회원]



- 1996년 2월 : 독일 뮌헨공대 식품
- 2002년 2월 : 독일 베를린공대 생물공학과 (이학박사)
- 2006년 2월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한국식품연구원 주류품질인증 심사위원
- 2015년 2월 ~ 현재 : 한국식품과학회 양조분과위원회 위원장

<관심분야>

양조학, 발효식품학